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3>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모든 것을 안다

‘맑고 깨끗한 부처님의 지혜(淸淨慧)’는 모두 선정에서 생겨난다. ‘어리석음’은 번뇌로써 밝은 세상을 어둡게 하여 중생의 고통을 가져오나, 밝은 지혜는 맑고 깨끗한 빛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타파하니 행복이 가득한 부처님의 세상을 장엄한다. 이것은 깨달음으로서 맑고 밝은 거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환하게 드러내니 ‘이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지혜(一切智)’를 성취한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깨달음이니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다. <선가귀감> 43장에서 말한다.

心在定則 能知世間生滅諸相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세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전해지는 <불유교경(佛遺教經)>에서 따온 글이다. 이 단락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그대 비구들이여, 마음을 챙기는 사람은 마음이 선정에 있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므로 세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에 비구들이여 그대들은 부지런히 모든 선정을 닦아야만 하니 선정을 얻은 사람은 마음이 어지럽지 않다. 비유하면 마치 물을 아끼는 사람이 물독을 잘 관리하듯 수행자도 그러하다. 수행자가 지혜를 위하여 선정을 잘 닦아서 지혜를 잃지 않게 하는 것, 이를 일러 선정이라 하느니라(放等比丘 若攝心者 心則在定 心在定故 能知世間生滅諸相 是故汝等 當常精勤修) ”

習諸定 若得定者 心則不亂 譬如惜水之家 善治堤塘 行者亦爾 爲智慧水故 善修禪定 舍不瀉失 是名爲定”
‘선정(禪定)’에서 ‘선(禪)’은 범어 dhyana의 음역이고 ‘정(定)’은 범어 samādhi의 의역이다. 선(禪)과 정(定)은 대체적으로 모두 어떤 한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조금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 이 선(禪)과 정(定)을 합쳐서 선정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다.

계율 지키는 삶 살면 고요한 선정 드러나고

걸림없이 생활하는 참다운 지혜가 생긴다

간화선(看話禪)이란 방편도 화두를 챙기는 사람이 화두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여 선정의 힘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화두라는 대상에 마음이 집중되면 어떤 판생각도 일어날 수가 없어 마음이 고요해진다. 화두와 하나가 되어 어떤 판 생각도 일어나지 않을 때 비로소 선정에 드는 것이며 그 마음은 조금도 때가 까지 않은 맑고 밝은 거울처럼 환해진다. 이 마음에 세간의 모든 모습이 비추어져 저절로 드러나니, 세간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모든 모습을 그 마음에서 알게 되는 맑은 지혜가 생긴다.

선정에서 생긴 지혜로 얻는 이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기신론>과 <월등삼매경>에서 말하는 것을 열

가지로 간추려 보겠다.
첫째, 사방세계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살아간다. 둘째, 어떤 마군이나 나쁜 귀신들도 다가와서 겁을 주지 못한다. 셋째, 그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하여 잘나가는 마음을 버리게 하니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려는 생각이 없다. 그러므로 주변 사람들과 모두 함께 어울려서 온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

넷째, 부처님의 법을 함부로 헐뜯지 않으므로 전생에 지었던 무거운 죄들이 차츰 소멸되어 행복한 생활을 한다. 다섯째, 법에 대한 모든 의심과 나쁜 견해가 사라져 올곧게 수행한다.

여섯째, 보고 듣는 경계가 고요하고 지혜로워 바깥 경계에 집착하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번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 일곱째, 옹망스럽게 공부하여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니 근심과 회한을

속에 모든 형상이 환하게 비친다.

마음이 선정에 있으면 그 마음은 맑은 햇살이나 맑은 호수라도 같아서, 가는 티끌 같이 고물거리는 미세한 번뇌의 움직임이나 그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다. 서산 스님의 이 말은 선교일치(禪教一致)를 주장했던, 중국 당나라 규봉(780-841) 스님이 대중을 떠나 산중에서 10여년 참선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자신의 선정 체험을 <도사>에 써 놓은 글에서 따온 것이다. 이 글의 앞뒤 내용을 소개해 보겠다.

“10여년 수행을 하니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미세한 번뇌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빠짐없이 환하게 알게 되고, 인연 따라 차별화 된 법과 이치가 벌어지는 것이 텅 빈 마음에 남김없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맑은 창 빔들 사이 화사한 햇살 속에 가는 티끌이 고물거리고, 맑은 호수 물속에 모든 형상이 환하게 비치는 것과 같으니, 이와 같은 선정과 지혜를 어찌 부질없이 침묵만을 고수하는 ‘어리석은 선(禪)’이나, 문자나 파고드는 ‘광기의 지혜’들과 비교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본디 자신의 마음을 맑으로써 모든 가르침을 분별하는 것이므로 간절한 뜻을 ‘선종’에 두었고, 또 모든 가르침을 올바르게 분별함으로써 마음 닦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정성어린 마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에 두게 된 것입니다.”

맑고 아름다운 삶이 계속되고, 이 계율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한 선정이 만들어지며, 이 선정에서 세상의 모든 일을 알기 때문에 걸림 없이 생활하는 참다운 지혜가 생긴다. <선가귀감> 38장에서 43장까지 수행을 말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계율, 선정,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 무엇 때문이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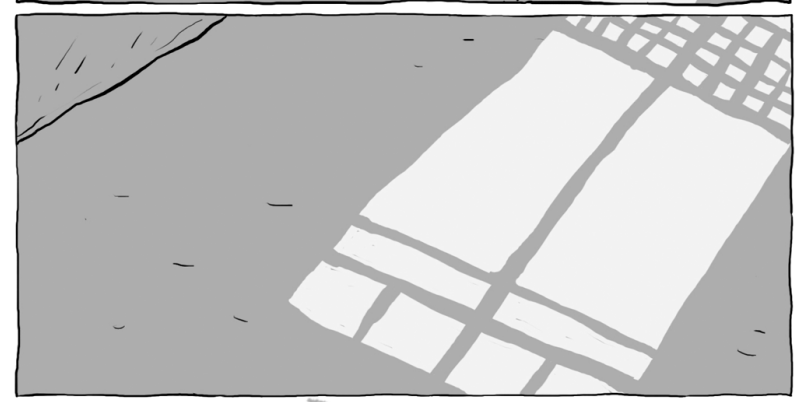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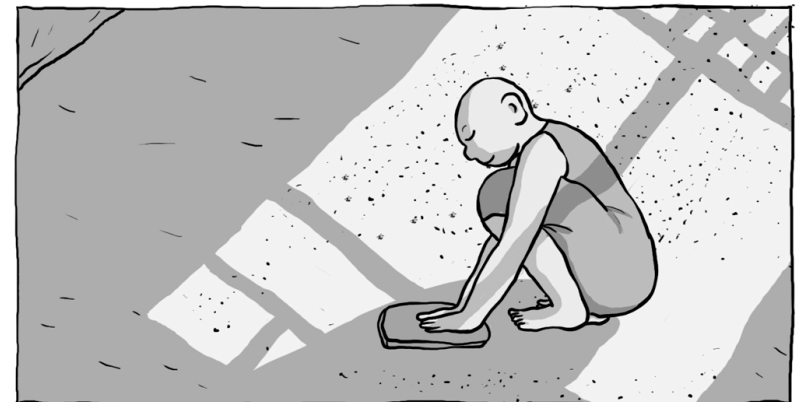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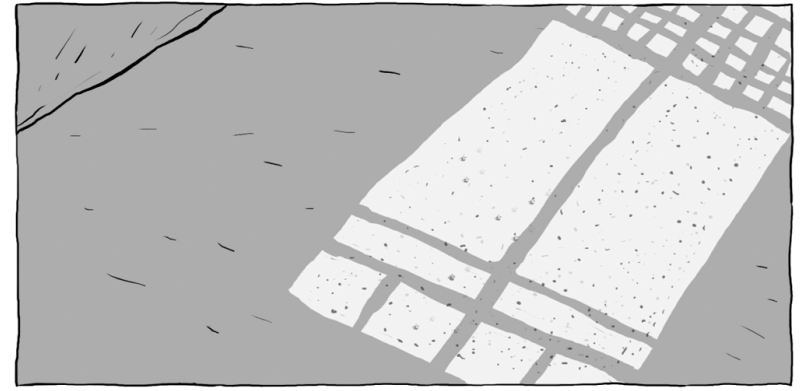
계율, 선정, 지혜 이 세 가지야말로 부처님의 모든 것을 배우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기 때문이다.

■원순 스님(승광사 인월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마음닦기



수행이란 하루를 닦지 않아도 보양제같은 먼지를 닦아내는 것과 같은 것...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땡추’

우리 일상에 녹아든 용어 중에는 불교를 비하하는 말들이 참으로 많습다. 어느 소장 불교학자는 그 원인을 놓고 “조선시대 500년 역불 정적에 낳은 시대적 업보”라고 쓴 소리를 하더군요. 일리가 있는 분석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스님같지 않

은 사람을 빗대 ‘땡추’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주색잡기나 하면서 사기나 치는 나쁜 스님이란 뜻입니다. 심지어 스님네들 사이에도 농담반 진담반으로 이 말을 자주 쓰고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땡추라는 말이 생겨났을까요? 원래 땡추는 ‘당취(黨聚)’라는 점잖은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무리 당(黨)’, ‘모일 취(聚)’이니, 스님들의 비밀결사를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였던 스님들이 스스로의 자구책으로 만들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이들 스님들은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목소리도 냈습니다. 조선후기 사회가 혼란해짐에 따라 민중반란

에 개입하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불정 책을 유지하던 조선시대에서 볼 때, 당취에 모인 스님들은 당연히 역적이 됐겠지요. 그뿐이었겠습니까? 천민 신분이던 스님들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어리석은 비난도 제법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취란 의미는 타락과 속화(俗化)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본래의 뜻과 떨어진 안타까운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말은 그 시대를 거울 같이 반영합니다. 당시의 곡해된 말로 오늘날을 말하면 안 됩니다. 비하된 불교 용어를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입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 강의 (118)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64강 12장 자심(自心)의 수지독송(受持讀誦)

11장 무위복승분(無爲福勝分)은 무엇이냐라 했던가. 겐지스강의 모래알같은 은하계들을 다이나몬드로 도배한다해도, 그 보시 복덕은 ‘이 경전’의 글귀 하나 들려주는 공적에 까마득히 못 미친다고 했다. 이어 지금 12장 존중정교분(尊重正教分)은 “대체 이 경전의 한 구절이 그토록 위대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응답 혹은 해명이다. 내용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

(1)이 경전의 글귀가 있는 그곳에, 육도의 상승에 위치하는 존재들, 즉 천상과 인간은 물론, 아수라들까지 우르르 일어나 찬란의 노래를 부르고, 다투어 꽃과 음식으로 공양을 올릴 것이다. 흡사 차이티아, 붓다의 탐묘가 있는 성스러운 곳을 경배하듯이...

(2)한 구절만 해도 그러할 진대, 이 경전체를 수지독송(受持讀誦)할 수 있다면, 그 성취의 크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최고의, 희귀한 진리의 성취자’가 될 것이다.

(3) ‘이 경전’이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곳이며, 위대한 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물어보자, 여기서 말하는 ‘경전’은 <금강경>의 문자 혹은 책인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읽어주는 것으로 일체의 천인 아수라들이 다투어 공양을 하며, <금강경> 전편 32장을 펼쳐 독송하는 것으로 최상의

희유한 진리를 성취하게 된다 말인가? 이 물음은 ‘문자’와 ‘진리’ 사이의 변증을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영현의 화두이다.

<금강경>, 위대한 경전

<금강경>은 신비로운 경전이다. 한자의 난해로 인한 어둠함에, 서방 인도의 인물들과 사건들이 주는 이그조티시즘(exoticism), 거기에 반복되는 역설의 어법이 겹치면 <금강경>은 지극히 신비로운 위광을 띠게 된다. 반복되는 역설이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수보리아, 내가 말하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한다... 수보리아, 내가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이름을 얻었다... 수보리아, 내가 말하는 위대한함은 기실 위대함이라 할 수 없다. 바로 그런 까닭에 내가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식은 이를 기이한 어법을 납득하지 못해 저만큼 달아나거나 비난했고, 종교적인 사람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경전 앞에 큰 절을 올렸다.

그러나 여기 유의할 것이 있다. ‘이 경전이 있는 곳에 곧 부처가 있으며, 그곳은 일체의 천인 아수라가 지극한 공양을 올린다’고 했다. 물어보자, 그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란 대체 어디인가?

저쪽에 모셔져 있을 때, <금강경>은 다른 어느 잡지나 교과서와 별로 다를 바 없다. 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경전이 있는 곳’이란 <금강경>의 메시지가 알려지고, 체화되고, 전달되는 그 어디쯤일 것이다. 그 공간은 <금강경>이라는 문자를 ‘통해’ 보여지긴 하지만, 중국 <금강경>이라는 문자를 떠난, 선가의 비유를 들면 활발발(活潑潑)한 지점일 것이다.

‘이 경전이 있는 곳’

지금 씨를 질러놓으면, <금강경>이 계속 “-는 -가 아니다. 그래서 -라고 한다”라는 어법을 즐기게 강조하는 것도, 그리고 그 유명한 “땃묵의 비유”도 <금강경>의 책자의 권위만 믿고, 정작 중요한 메시지의 습득을 소홀히 할까 싶어 우려한 경계의 말씀이다. 그 노파심의 극단에서,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선이 발흥했다는 것은 다를 잘 아시는 사제이다. 만해 또한 그 전통을 따라 “<금강경>은 먹으로 쓰여진 책 위의 문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의 증중자이자 실질적 창시자인 육조 혜능은 문자를 버리지 않고, 그 취지를 장악하는 방법을 권유했다. 예컨대, 소승과 대승에 대한 그의 정위는 이렇다. “소승(小乘)은 이치 문자의 숲에서 헤메는 사람이고, 중승(中乘)은 문자의 취지를 대강 캐치한 사람, 그리고 대승(大乘)은 바로 그 자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최상승(最上乘)은? 그는 바로 그런 노력조차 필요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혜능의

분류대로 하자면, 소승에서 대승, 그리고 최상승으로 올라서는 바로 그곳이 ‘이 경전이 있는 곳’이다. 다시 혜능의 비유를 빌리자면, “<금강경>에 휘둘리지 않고, <금강경>을 굴리는” 자리가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라 하겠다.

<금강경>의 수지독송 진정한 수지독송은 <금강경>을 나침반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금강경>

悟得本來佛性, 常行眞實, 感得天人阿修羅, 人非人等皆來供養持經之人.

“주변에 후시 누가 있으면, 이 경전을 설해 주라. 녀념이 언제나 무념심(無念心)을 살라고... 무소득심(無所得心),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작능소심(不作能所心), 내 욕심과 편견으로 세상을 가르치고, 사람을 차별지 않는 마음으로 살라고... 마음의 둔탁한 찌꺼기를 제거하고, 무소득의 마음으로

음으로 이 경전을 설하는 자, 그는 듣는 이들이 모호한 미망심(迷妄心)을 제거케 하고 본래의 불성을 깨닫도록 하며, 늘 진실(眞實)을 행케 하고, 천인 아수라를 감격 격동시키는 신비한 힘을 행사한다. 그래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아닌 모든 와서 이 ‘경전 가진 자’를 공양하고 경배하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무성한데, 실행이 없다면 그것을 어디다 쓸 것인가. 5%의 실천으로 기업의 흥망이 결정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외기만 하고, 취지를 모르는 소승의 삶, 취지는 알되 그대로 실천하지 않는 중승의 삶으로는 진정한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몸으로 읽는 <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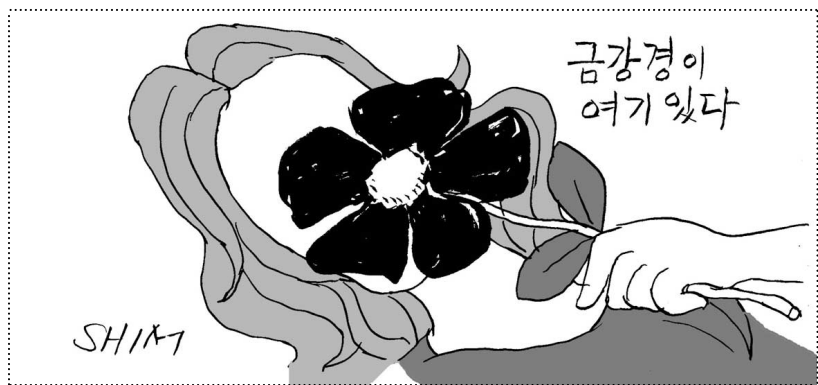
혜능이 그 ‘체득’을 다시금 강조한다. 自心誦得此經, 自心解得經義, 更能體得無著無相之理, 所在之處 常修佛行, 念念無有間斷, 即自心是佛, 故言所在之處即爲有佛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을 외워 읽고, 내 마음으로 이 경전의 취지를 이해하여 읽고, 다시 능히 무착(無著)과 무상(無相)의 이치를 몸으로 체화하여 얻는다. 서 있는 자리에서 늘 붓다의 행동을 닦음에, 한 순간도 틀이 지지 않을 때, 자심은 곧 부처가 된다. 그래서 ‘서 있는 곳이 곧 부처가 있는 자리’이라 했던 것이다.”

<금강경>의 수지독송은 다시 말하지만, 경전의 취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받아들인 다음, 그것을 몸에 새겨 기억시켜 나가는 자심(自心)의 작업이다. 그 체득을 위한 고투의 현상이 바로 ‘이 경전이 있는 곳’이다. 그 고투와 피를 향해 인친 아수라들이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꽃을 흩뿌려 공양할 것이다.

혜능은 여기서도 돈교의 진실성을 거듭 강조해 마지않는다. 그때 “너는 진정한 부처이다(自心是佛!)”

■한국학중앙연구원

금강경은 어디 있는가?



의 취지를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수용하여, 거기 따라 삶을 영위해나가는 것이 진정한 수지독송일 것이다. 혜능이 말한다.

所在之處, 如有人即說經, 若念念常行無念心, 無所得心, 不作能所心, 說若能遠離諸心, 常依無所得心, 即此身中有如來全身舍利, 故言如佛塔廟, 以無所得心說此經者, 感得天龍八部, 悉來聽受. 心若不淨, 但爲名聞利養而說經者, 死墮三途, 有何利益. 心若清淨而說經者, 令諸聽者除迷妄心,

대로 살 때, 이 하찮은 몸이 여러의 전신 사리가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경전이) 이 사구계를 지나는 자리가 ‘부처의 탐묘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무소득의 마음을 가진 자의 설법은 천룡 팔부를 감격시키고, 그들이 다투어 이 위대한 가르침을 듣도록 만든다. 하나, 청정지 않은 마음으로 이름과 이익을 노리고 이 경전을 설하는 자, 그는 죽어 세 악도에 떨어지니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청정한 마